

CHAPTER 4 · 03/24 ~ 03/30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인가?

기술융합기반상담세미나 · 2026 봄학기

유호현 · 건국대학교 상담심리학과

3교시 구성

1교시 · 50분

발제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인가?
AI 시대 직업의 재정의

2교시 · 50분

체험

AI로 사례개념화 해보기
CBT · 정신역동 · 인본주의

3교시 · 50분

토론

우리가 만들 것
End-to-End Journey + 통합 플랫폼

노동의 종말은 오지 않는다

기술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노동의 종말"을 이야기했다.

- 1 세탁기 → "집안일 안 해도 돼!"
- 2 컴퓨터 → "모든 게 자동화돼!"
- 3 AI → "일 안 해도 돼!"

현실은?

우리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 사람이 나를 본다면

현대인의 하루를 조선시대 직업으로 번역하면:



새벽부터 일함 = 노비



왕복 50km 출퇴근 = 마차꾼



편지 20통 = 전령



보고서 산더미 = 서기관



온갖 책 = 선비



전 세계 언어 = 역관



빨래+밥+설거지 = 아낙



투표로 국정 참여 = 왕

완전한 갓생 n잡러. 하지만 우리는 "마차꾼+전령+선비"라고 부르지 않는다.

기술 인프라가 옛 직업을 흡수했으니까.

스킬에서 목적으로

옛 시대

"뭘 할 수 있는가"

코딩 → 개발자

글쓰기 → 작가

법률 → 변호사

AI 시대

"왜 이 일을 하는가"

문제 해결 → 문제 해결자

생각 전달 → 생각 전달자

약자 보호 → 약자 보호자

AI가 스킬을 인프라로 만들면, 남는 건 "왜"뿐이다.

전문직 역할 변화

- 사서 → 정보관리자 · 디지털큐레이터 (검색 엔진)
- 교사 → 학습설계자 · 멘토 (온라인 교육)
- 의사 → 의료판단자 · 환자관계관리 (AI 진단)

상담사 → ??? (AI 에이전트)

사례: n잡러에서 전환 기획자로

유호현이 동시에 하는 일:

- (주)옥소폴리틱스 대표
- Tobl AI 대표
-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 태재미래전략연구원 팀장
- 작가 (슈퍼휴먼 슈퍼워크)
- 국가AI전략위원회 강연자
- 정치인 IT 정책 자문
- 개발자

하나의 일관성:

- 한국 보안 → 글로벌 표준 전환
- 상담사 → AI 활용 지원
- 시민 → 정치 직접 참여
- 기업 → AI-First 전환

전부 "전환"이다.

직업 = 전환 기획자
(Transition Planner)

모든 직업이 이렇게 바뀐다

개발자 → 문제 해결자

한 사람이 앱도 만들고, 서버도 세우고, 데이터도 분석한다.

작가 → 생각 전달자

책, 유튜브, 팟캐스트, 뉴스레터, 숏폼 — 매체의 벽이 사라진다.

변호사 → 약자 보호자

소송 + 피해자 앱 + 권리 교육 유튜브 + 정책 보고서 + 캠페인 영상

상담사 → 마음 치유자

상담 + AI 챗봇 + 감정일기 앱 + 명상 음악 + 심리 교육 콘텐츠

6가지 목적 카테고리



전환

세상을 A에서 B로 바꾸는 사람



성장

사람과 조직을 키우는 사람



보호

위험에서 지키는 사람



치유

고통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사람



표현

의미와 감정을 전하는 사람



연결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람

상담사는 **치유**와 **성장**에 위치한다.

상담의 확장: 치유에서 자기 실현까지

- 1 치유 — 아픔을 고친다
- 2 안정 — 아프지 않게 한다
- 3 관계 — 사람과 연결한다
- 4 의미 — 왜 사는지를 찾는다
- 5 자기 실현 — 잠재력을 펼친다

"치유"에만 머물면

아픈 사람만 돕는 것이다.

자기 실현까지 올라가면

모든 사람의 영역이 된다.

— Rogers의 자기실현 경향성

+ Maslow 욕구 단계 (Yin & Zhang, 2025)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인가?

→ 나의 현재 직업(또는 목표 직업)을 '목적'으로 정의한다면?

"나는 [대상]을 [목적 동사]하는 사람이다" — 이 문장을 완성해 보자.

→ 상담사의 역할이 '치유'를 넘어 '자기 실현 안내'까지 확장된다면, 우리의 훈련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 AI가 내 직업의 스킬을 대체한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AI로 사례개념화 해보기

같은 축어록을 세 가지 이론 렌즈로 동시에 분석한다.

CBT (Beck)

"이 사람의 생각이 문제다"

축발사건 → 자동적 사고 → 인지왜곡 → 중간신념 → 핵심신념

정신역동 (Luborsky)

"이 사람의 관계 패턴이 문제다"

소망 → 타인의 반응 → 자기의 반응 (CCRT 패턴 반복)

인본주의 (Rogers)

"이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문제다"

이상적 자기 vs 현실적 자기 불일치, 조건부 사랑

BRIDGE 프레임워크 (Gainer, 2025)

- B** Build rapport — AI 분석 이전에 치료적 동맹 먼저
- R** Review data — 비식별화된 축어록을 AI에 입력
- I** Integrate insights — AI 결과를 임상적 판단과 통합
- D** Discuss with client — "이런 패턴이 보이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 G** Guide next steps — 치료 계획 조정
- E** Evaluate outcomes — 회기별 감정 흐름 비교로 변화 추적

핵심: **B(관계)**가 맨 앞에 온다. AI 분석도 치료적 관계 위에 놓여야 한다.

AI 기반 축어록 분석 실습

1 감정 흐름 분석 — 발화별 감정+강도(1-10)

2 CBT 사례개념화 — Beck 인지 모델

3 정신역동 — Luborsky CCRT 분석

4 인본주의 — Rogers 이론

5 통합 비교 — 세 관점 비교표

6 비판적 평가 — 타당성 + 한계

7 상담사 반응 — 패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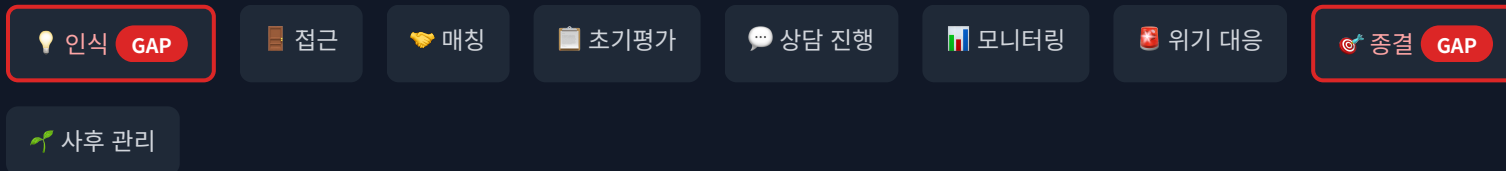
과제

축어록 분석 보고서 A4 2-3페이지

LMS 제출 · 다음 주 수업 전

상담의 End-to-End Journey

3주차 14개 프로젝트를 전체 여정에 매핑. 빨간 테두리 = 비어있는 기회.



"인식"(내가 문제가 있다고 깨닫는 것)과 "종결"(상담을 잘 마무리하는 것) — 우리가 채워야 할 곳.

14개 앱 vs 1개 통합 플랫폼

교수 (총감독) — 코어

- 인증 / 역할 관리
- 공통 데이터
- AI 연동 (Gemini/Claude)
- 배포 + 코드 리뷰 + 머지

학생 6팀 — 모듈

- A: 감정 일기 + 패턴 분석
- B: 위기 대응
- C: 사례 배정 + 센터 운영
- D: 상담사 AI 보조
- E: 커플/관계 상담 체크
- F: 상담 후 회고 + 자기성장

PR → 코드 리뷰 → 머지 — 실제 회사의 개발 프로세스를 배운다.

우리가 만들 것

- 상담의 End-to-End 여정에서 비어있는 "인식"과 "종결" 단계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 14개 프로젝트 중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AI가 맡을 부분과 인간이 맡을 부분의 경계는?
- 플랫폼 이름을 짓는다면? 이 플랫폼이 해결하려는 상담 현장의 진짜 문제는?

같이 정해야 할 것

플랫폼 이름

도메인

팀별 모듈 배정

상담사가 AI 시대에
"마음 치유자"를 넘어
"자기 실현 안내자"가 되려면

상담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음 주: Chapter 5 — AI가 자살 위험을 감지했을 때, 개입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